

“일할수록 빛” 농어촌 ‘패닉’

초고유가 직격탄 맞은 전남



전남지역 농어민들이 고유가 직격탄을 맞고 있다. 어민들은 어획고 감소와 수입 어류 급증, 면세유값 폭등으로 사실상 출어를 포기하고 있다. 인건비·농자재값 폭등으로 인한 농민들의 시름도 깊어지고 있다. 전남지역 농민단체에서는 정부의 농업정책을 비난하며, 사상 초유의 ‘농작물 출하거부 운동’까지 공언하고 있다.

면세유값 폭등과 어획량 감소로 인해 어민들의 시름이 커지고 있다. 25일 오전 어민들이 목포항에서 출어를 위해 그물을 손질하고 있지만 만선의 기쁨을 누리보지는 못했다. /최현배기자 choi@kwangju.co.kr

어촌은 밭뽕인 배, 희망없는 바다 ‘한숨만’

25일 오전 8시 목포 삼학도 선착장. 조업을 포기한 채 닻을 내린 어선 30여척이 선착장에 묶여 있었다. 선착장에는 선주들이 삼삼오오 모여 앉아 치솟는 면세유가와 줄어드는 어획고를 걱정하며 깊은 한숨을 내쉬고 있었다.

데 어느 선주가 바다에 나가겠는가”라고 하소연했다. 면세유 가격이 천정부지로 치솟으면서 목포지역 상당수 어선들이 출어 자체를 꺼리고 있다. 어업용 면세유 가격은 현재 경유 200ℓ 한 드림당 17만 5천860원. 이는 지난해 같은 기간 11만4천640원 보다 무려 53.4%나 오른 것이다. 출어 경비의 70%를 차지하는 면세유 가격이 이처럼 치솟으면서 출어가 곧 손해로 이어지고 있다. 당연히

출어 포기 사태가 속출하고 있다. 기름값이 오르면서 어망 등 어구(漁具) 값도 덩달아 올랐다. 지난해 200ℓ 짜리 20드림의 기름을 사용하는데, 기름값·인건비 빼고 나면 남는 게 없다”라고 말했다. 20년째 뱃일을 해온 7.93t급 ‘대장호’ 선장 송문목(55)씨는 “올해처럼 힘든 적은 없었다. 출어고 낮고 다 때려 치워야 할 판이다. 해봐야 빛만 지는데 차라리 안하고 말지”라며 답답한 심정을 토로했다. /이종형 기자 golee@kwangju.co.kr /목포=이성욱기자 lsh@kwangju.co.kr /신안=조완범기자 wncho@kwangju.co.kr

군 어획량은 60~70kg. 지난해 120kg에 비해 절반으로 줄었다. 김씨는 “보통 한 번 출어하면 열흘 정도 나가 200ℓ 짜리 20드림의 기름을 사용하는데, 기름값·인건비 빼고 나면 남는 게 없다”라고 말했다. 20년째 뱃일을 해온 7.93t급 ‘대장호’ 선장 송문목(55)씨는 “올해처럼 힘든 적은 없었다. 출어고 낮고 다 때려 치워야 할 판이다. 해봐야 빛만 지는데 차라리 안하고 말지”라며 답답한 심정을 토로했다. /이종형 기자 golee@kwangju.co.kr /목포=이성욱기자 lsh@kwangju.co.kr /신안=조완범기자 wncho@kwangju.co.kr

농촌은 “손해보느니 출하 거부” 움직임도

농업용 면세유와 각종 농자재 값이 폭등하면서 농민들의 시름이 커지고 있다. 25일 오후 나주시 봉황면 들녘. 40여년 벼농사를 지어온 원종철(75)씨는 “농자재 값을 어떻게 감당해야 할지 모르겠다”며 “이렇게 농자재 값이 오르면 농사를 지으면서 처음이다. 농사를 지어봐야 손해 볼 것이 뻔하다”며 한숨지었다. 원씨의 논 주변엔 농사짓기를 포기

한 논들이 부지기수였다. ‘벼농사는 하면 할수록 빛만 늘리게 될 것’이라는 인식 속에 농민들이 일찌감치 농사를 포기한 것이다. 660㎡(200평) 기준 연간 쌀 생산량은 200kg 정도. 20kg 짜리 한 포대 당 거래가격은 4만~5만원선이다. 그러나 모내기를 위한 논갈이나 모심기, 벼베기 비용은 660㎡당 각각 3만5천~4만원선으로 연간 최소 15만원 정도 소요된다. 벼 밀기름을 비료 가

격은 올 들어 20kg 기준 1만2천400원으로 지난해 보다 20~25% 가량 올랐다. 인건비도 하루 평균 6만원으로 지난해 보다 1만~2만원 가량 뛰었다. 농업용 면세유 값은 최근 ℓ 당 1천200원을 넘어서 지난해 같은 기간에 비해 580~680원이나 급등했다. 결국 인건비와 각종 농자재 값을 제하고 나면 빛만 남게 되는 것이다. 같은 마을 이철민(58)씨는 “기름값

과 농자재·인건비를 보면 차라리 농사를 짓지 않는 것이 낫는 것”이라며 “영농철인데 마음이 어수선해 일손이 잡히지 않는다”고 말했다. 농민들 사이에서는 손해를 보느니 차라리 모든 농작물의 시장 출하를 거부하는 극단적 움직임도 나오고 있다. 전국농민회총연맹 광주·전남연맹은 최근 농산물 출하거부 투쟁 및 출하 조정 문제를 놓고 논의를 하는 등 내달 중순까지 이 두 가지 안에 대해 최종결정을 내릴 방침이다. /이종형 기자 golee@kwangju.co.kr /나주=최승렬기자 srchoi@kwangju.co.kr

치솟는 경유값 화물차 멈췄다

화물연대 자율적 폐업

“파업요? 아니 폐업입니다.” 화물연대 광주지부 분위기가 심상치 않다. 경유값 급등에 따른 운송료 증가로 생존을 위협받고 있는 조합원들이 “운전대를 잡기만 해도 적자가 늘어난다”며 하소연하고 있다. 삼성광주전자의 물류운송을 담당하고 있는 광주지부 1지회 2분회(컨테이너분회) 소속 조합원들은 오는 6월 10일까지 운송료 현실화 대책을 내놓지 않으면 자율적으로 폐업에 돌입하기로 했다. 컨테이너분회 소속 조합원 110여명은 지난 17일 ‘컨테이너 운송료인상 투쟁 선포식’을 갖고 하남공단 5번로 경방사거리 인근에서 무기한 전략 농성에 돌입했다. 현재 컨테이너 차량을 운영하는 개인 차주는 ℓ 당 290원대의 유가 보 조금을 받지만 경유가격이 ℓ 당 1천 860원대에 육박하는 현실에서 자체

적으로 운송료를 감당하기가 불가능한 상황이다. 조합원들은 경유값이 ℓ 당 1천100원대에 머물던 지난해 이후 지금까지 운송료가 전혀 오르지 않았으며 운송료의 유가연동제 도입을 주장하고 있다. 화물연대 측은 부산 1회 왕복을 기준으로 38만원이 들어가는 운송료는 최근 50만원까지 올랐다고 주장했다. 지난해만 해도 1회 운행에 8만원 정도를 벌었지만, 현재는 오히려 4만원 가량이 적자라는 것이다. 화물연대 측은 오는 7월 1일부터 적용되는, 새로운 운송료 협상에서 운송료 40% 인상과 유가연동제 적용을 요구하고 있다. 하지만 삼성광주전자의 컨테이너 운송을 하청받은 삼성전자로직텍 측도 쉽게 운송료를 올려주지는 못할 것으로 보인다. 유가 인상으로 개인 차주가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은 알지만, 기업 측이 겪는 어려움도 만만치 않다는 입장이다. /한정기자 ahj@kwangju.co.kr

심야영업 가게 잇단 강도 ‘불안’

광주 사흘새 3건이나

하루 24시간 영업을 하는 편의점과 분식집을 상대로 한 강도 사건이 사흘 새 3건이 잇따라 발생해 상인들을 불안하게 하고 있다. 25일 새벽 4시20분께 광주시 광산구 월계동 A편의점에서 40대로 보이는 남성이 들어와 혼자 있던 여종업원 김모(30)씨를 흉기로 위협한 뒤 현금 80만원을 빼앗아 달아났다. 또 지난 24일 새벽 5시30분께 광산구 운남동 B집밥 집에서 20대 중반으로 보이는 남성이 손님들 가운데서

운 뒤 주인 김모(30)씨를 흉기로 위협해 현금 18만원을 빼앗아 도주했다. 앞서 지난 23일 새벽 2시10분께에도 서구 치평동 C편의점에서 20대 후반으로 보이는 강도가 아르바이트생 이모(22)씨를 흉기로 위협, 현금 30여만원을 빼앗아 달아나는 등 사흘 새 3건의 강도가 발생했다. 경찰은 두 편의점 CCTV에 찍힌 범인의 인상착의로 미뤄 동일 인물인 소행일 가능성이 높다고 보고 동종 전과자 등을 상대로 탐문수사를 벌이고 있다. /이종형·강필성기자 golee@kwangju.co.kr

경찰 “촛불집회 불법시위 엄정 대처”

미국산 쇠고기 수입 반대 촛불집회 가 도로 점거 불법시위로 번지자 경찰이 37명을 연행하고 불법행위 주동자에 대해 구속영장 신청을 검토하는 등 ‘엄정 대응’ 방침을 밝혔다. 이에 맞서 시민단체들은 촛불시위, 노숙농성, 거리행진 등을 이어가기로 해 농림식품수산부 장관 고시를 앞두고 긴장이 고조되고 있다. 25일 경찰에 따르면 이날 새벽 서울 세종로 교보문고 부근 왕복 8차선

도로에서 밤샘 시위를 벌였던 미국산 쇠고기 수입 반대 촛불문화제 참가자 500여명 중 37명이 현장에서 연행돼 송파·수서·중부·용산경찰서에 분산돼 조사를 받고 있다. 경찰은 불법 시위가 조직적으로 계획됐는지 또는 우발적으로 발생한 것인지 조사하는 한편 위법이 확인될 경우 이들을 사법처리하고 만약 주동자가 드러나면 구속영장 신청도 검토하기로 했다. /연합뉴스

나원침 (7515) 김장두



다중의 건축·산업지체 KCC (주) 금복시스템 개인주택, 아파트 발코니 신규사시 자막 및 상담연락처 ▶ 서울본사 : 02) 3445-0943 ▶ 나주본점 : 061) 337-0571

“5·18 목한다” 주먹다짐 ○5·18 민중항쟁에 대해 부정적인 말을 했다는 이유로 술자리에서 주먹 다짐을 벌인 50대 남성 두 명이 나란히 경찰서행. ○광주북부경찰에 따르면 박모(54)씨는 지난 24일 밤 11시30분께 광주시 북구 모 술집에서 “5·18 관련 단체 회원들이 술을 마시고 행패를 부린 적이 있다”는 등 5·18에 대한 부정적인 말을 한 뒤, 이를 따지던 옆자리 손님 윤모(52)씨와 서로 주먹질을 했다는 것. ○5·18 관련단체 회원인 윤씨는 “내가 행패 부린 그 단체 회원이다”며 박씨에게 따지면서 고성과 함께 주먹다짐이 벌어졌다고. ○경찰 관계자는 “5·18이 일어난 지 30년 가까운 세월이 흘렀지만 아직도 그 상처가 아물지 않은 것 같아 안타깝다”며 박씨와 윤씨를 폭행 혐의로 불구속 입건. /이종형기자 golee@kwangju.co.kr

재혼만 11년! **영복빌딩** **527-3388** **호어 커리어 매니저 직권 구함**

국바다 농물탕 **061-515-3339~40**